

경희월드컵

2019년 5월 행사의 꽃, 체육대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전술을 짜고, 모든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은 만큼 학생들이 재밌게 잘 마무리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체육대회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잘 어우러져 행사가 재밌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체육대회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남고 체육대회의 꽃은 당연히 축구경기 아닐까요?

5월 체육대회는 3학년만 축구, 농구경기를 하는데요, 이번 축구 경기는 심장이 쫓기해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 년 동안 딱 하루 경기를 하는 3학년들은 모두 혼신을 다해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경기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경희고등학교만의 종목, 여자선생님들의 승부차기를 빼 놓고는 경희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설명할 수 없는데요, 선생님들의 승부차기는 더위도 잊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번 승부차기는 교생 선생님들까지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는데요, 교사들과 학생들이 줄넘기 대결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경계 없이 활동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표정은 학생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점수를 내지 못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자, 연장전 대신 승부차기를 하었는데요, 열 번이 넘는 패널티킥을 통해 결국 3학년 1반이 우승을 차지하고 다 같이 모여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사진입니다. 사진만 봐도 우승의 행복이 확 다가오지 않나요?



2인 3각도 체육대회하면 빼 놓을 수 없는 종목 중 하나이죠. 각각 한 쪽 발을 이어 고정시켜 서로 합을 맞추어 빨리 들어오면 이기는 간단한 게임이지만, 의외로 합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종목이네요. 2인 3각을 하며 친구끼리 우정도 쌓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2인 3각, 여러분도 같이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과학의 날

5월에 경희고등학교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맞이하는 5월은 학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기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5월은 교생실습이 있는 달이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생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더 즐겁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들 중에서 과학의 날 행사가 5월 1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4과목의 경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시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푸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 오후에는 학생마다 사전에 선택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향수 만들기, 안전 구조물 만들기, 글라이더 날리기 등의 여러 체험이 있었습니다.



‘도전! 환경ox퀴즈’

과학의 날을 맞아 대강당에 모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가 진행되었습니다. 퀴즈대회가 시작되자마자 대강당은 금세 학생들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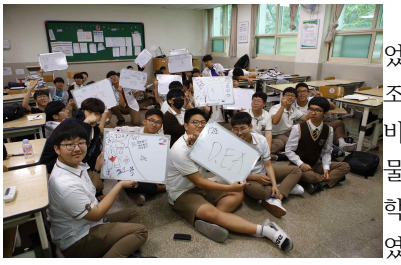
지식을 뽐내기 위한 열정으로 달구어졌고, 어느새 모든 학생들이 퀴즈대회를 즐기며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이 낙담하고 있었던 것도 잠시, 패자부활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렸고, 계속되는 열띤 경쟁 끝에 최후의 1인이 남게 되었습니다. 1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되면서 환경퀴즈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향수 만들기 행사에서는 직접 아세트산과 다른 약품을 넣어서 향을 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향수는 아세트산 향을 지우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약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시약에선 아세트산 향이 강했지만 냄새가 나는 것에서 학생들은 뿌듯함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전 구조물 만들기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손재주를 필요로 했습니다. 체험은 수수깡과 스티로폼을 이용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이쑤시개로 연결하여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이것들로 어떻게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조물을 만들고 결과물을 냈을 땐 밑 부분을 튼튼히 만들면 아무리 재료가 좋지 않아도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식물이름 맞추기도 한창이었는데요, 3~4명의 학생들이 조를 짜 참가하였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여러 식물들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또 오며가며 보고 지나쳤던 이름도 몰랐던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공부에 지친 학생들도 식물이름 맞추기를 통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아름다운 자연에 가까워져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강당에서는 과학퀴즈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맞히며 기뻐하고 틀리면서 아쉬워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관한 상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꼭 우승하지 않아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실 밖에서는 글라이더 날리기 대회로 북적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가위질 하여 만든 글라이더라 그런지 모두 문제없이 잘 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글라이더를 던지고 날아가는 것을 구경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막을 내리며 우리는 과학의 날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순위를 매기는 대회였지만, 치열히 경쟁해야하는 대회와 다르게 학생들 모두가 순위에 상관없이 웃으며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통해 과학 실력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재미나 재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졸업생들의 만남



5월 17일 토요일, 인적네트워크 강화 차원으로 학교 세미나실에서 교장선생님과 졸업생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최근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졸업해서도 변함없는 경희인들간의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서로간의 대학생활에 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대학 입학 시에 다른 학교에 비해 경희고등학교의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우관계를 맺는 등의 학교생활이 즐거웠으며 그에 따른 학업분위기를 형성에도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마무리 지으며 졸업생 모두가 이번과 같은 행사를 내년에도 후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였으면 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보였습니다.

보건교육



5월 22일 5·6교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19신고방법과 위급상황 시의 행동요령, 응급처치 시 지켜야 할 사항,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배웠으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환자의 목숨을 구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잘 수행한다면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용 마네킹으로 실습해보며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었는데, 쉬지 않고 후부압박을 진행할 땐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힘이 들었지만,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현재 교생 선생님 인터뷰

기자 > 안녕하세요. 경희고등학교 교지편집부에서 나온 박서진, 김준원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생 > 아니에요.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입니다. ^^

기자 > 간단한 자기소개(이름, 대학교, 학과 등) 부탁드립니다.

교생 > 저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4학년 진현재입니다. 경희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여러분들과 선후배 관계네요!

기자 >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교생 > 교사에 대한 꿈은 지금까지도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교사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던 거 같아요. 멋있기도 하고, 친구들과 서로 모르는 걸 알려주면서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다 보니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별다른 봉사나 스펙 쌓기,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대신 저는 1, 2학년 때는 여름방학 때 매일같이 학교 나와서 여러분 선배들 자기소개서를 봐주고 그랬어요. 학원 수업이나 과외도 잠깐 나갔었고, 경희고에서 방과 후 멘토링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일도 하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교직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학생이나 후배들을 도와주는 게 즐겁고, 잘됐으면 좋겠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소중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 경희고등학교에 대한 첫인상, 2학년 8반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교생 > 사실 고등학교야 제가 졸업한 곳이라 크게 새롭지는 않았어요. ^^ 예전에 절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도 계시고,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낸 추억이 담긴 만큼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학교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한 2학년 8반은 전반적으로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지 착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기자 > 본인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 여쭙볼 수 있을까요?

교생 > 어떤 상황이 처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도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고. 삶은 배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루에 무언가 하나씩이라도 더 알게 되면서 저와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자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생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니깐요. 가끔 삶이 드라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이다음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있어요. 또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가장 큰 목표가 대학 입시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선배랑 선생님들께 도움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든 공부 비결이든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물어봐 주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여러분을 만난 거니까요!

기자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지편집부 박서진, 김준원이었습니다.



만든사람들 교지편집·기자반

- 김도현, 박승훈, 손예준, 송창학, 김민성, 김정현,
김근석, 박건우, 강수영, 김준원, 박서진